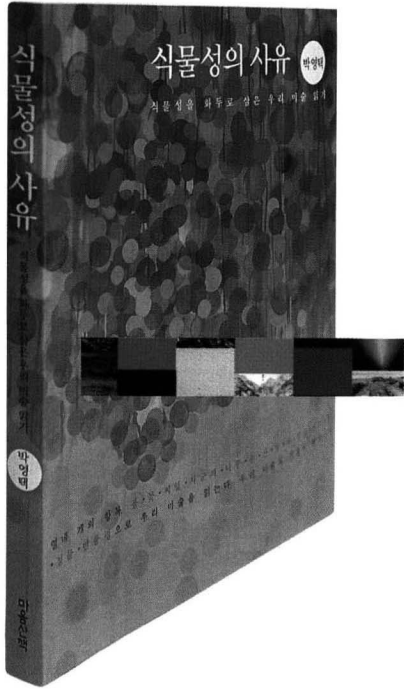


식물성에 대한 인식의 틀을



미.술.비.평.가.박.영.택.식.물.성.의.사.유

확장시키는 화법

〈출판저널〉이 연중기획으로 펼치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 《식물성의 사유》와 미술비평가 박영택 씨가 선정됐다. 한여름에 쏟아진 양서 속에서 격론 끝에 결정된 8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경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저널〉 기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후보로 추천된 책 10종(후보작 명단 참조)을 독회한 후 지난 7월 10일 최종 선정회의를 가졌다. 최종 선정회의에 넘겨진 책은 정민의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김근의 《육망하는 천자문》, 강봉균 외 55명의 《월경越境하는 지식의 모험자들》, 이형권의 《풍속기행》, 박영택의 《식물성의 사유》 등 5종이었다. 이들 책은 무엇보다 독자의 책임 지평을 넓히는 기획성과 글의 깊이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정민의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는 옛 그림과 한시 속에 등장하는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문학 회화 조류학을 넘나드는 분방함으로 새로운 인문학 코드를 형성한 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옛글과 이미지를 디지털 시대의 고급한 콘텐츠로 생산해 낸 저자의 노력은 고전의 현

대화가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지를 실증해 보인 귀감으로 받아들여진다.

김근의 《육망하는 천자문》은 표의문자가 지닌 정치성을 깊이 있게 해석한 책이다. 저자는 위우기 급급했던 천자문에 밴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정치성을 구명하고, 현대에 적용함으로써 동양적 이데올로기와 육망의 실체를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강봉균 외 55명의 《월경越境하는 지식의 모험자들》은 지성인 백과사전으로 불릴 만한 책으로, 특히 지식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밀도 있게 소개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인물에 대한 과감한 소개로 지성인들의 정신적인 활로를 열어주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형권의 《풍속기행》은 민족의 자취를 채집하고 되살린 저작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예인들의 삶을 증거하고, 잊혀져가는 풍속의 현장에 일일이 입회해 기록하는 것은 분명 격려받아야 할 일이다. 민속이란 사람과 땅의 합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주는 책이다.

박영택의 《식물성의 사유》는 회화 설치미술 조각 사진 등 100명의 작품을 '식물성' 과 연계시켜 해석하면서 예술작품 속의 식물성과 삶에서의 식물성을 함께 생각하게 한 책이다. 이 책의 미덕은 저자의 눈길이 닿음으로써 해당 작품의 작품성이 한층 돋보이는 한편 물성에 대한 인식의 틀을 확장시킨다는 데 있다. 신선한 화법을 지닌 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때묻지 않은 시선과 서구 이론에 의지하지 않고도 작품과 동행할 수 있는 비평 에세이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위원들은 위 다섯 종의 책을 놓고 회의를 벌인 후 최종적으로 정민의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와 박영택의 《식물성의 사유》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두 책은 공통적으로 즉물화에 마취되어 가는 시대를 촉촉하게 적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한 대중출판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들은 두 책을 공동 선정하는 것도 '이 달의 책, 이 달의 저자' 기획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데 접근했지만 박영택씨의 《식물성의 사유》를 선정하는 것이 이 책에 포함된 많은 작가들의 작업정신을 격려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선정위원들은 두 책 모두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싱그러운 책임기의 시공간을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식물성의 사유》를 통해 소외되고 하찮아 보이는 식물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눈길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